

### OR-II-3. 중등도 치주염에 의해 발거된 치아의 수평부착상실에 대한 연구

김진숙\*, 이주연, 김성조, 최점일

부산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 연구배경

치주질환의 진행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부착수준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항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 부착수준의 대부분은 수직적 요소를 평가하고 있으나, 질환의 진행과정 중 상당비율의 수평부착상실이 보고 되고 있다. 수평부착상실은 진료실에서 측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설사 존재하더라도 형태학적인 장애요인은 기구를 이용한 치주처치를 힘들게 한다. 존재하는 수평부착상실 부위는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지속적인 질환 진행의 잠재적 요소가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중등도의 치주질환에 이환되어 발거된 치아의 수직적 및 수평적 부착상실의 양상을 조사하여 차후 치주 질환 진행의 잠재적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 부위를 미리 예측하고 적절한 처치를 위한 근거를 제시할 목적으로 시행하였다.

#### 연구재료 및 방법

치주적인 문제로 발거된 치아 중 건전한 백악법랑경계를 가진 치아를 수집하여 erythrosine용액으로 염색하였다. 흐르는 물에 10분 정도 세척하고, 공기 중에서 10분간 건조하였다. 백악법랑경계를 노출시키고 측정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초음파 스케일러를 이용하여 치태와 치석을 제거하였다. digital 카메라로 촬영하고, digital imaging soft ware(AxioVision, Carl Zeiss Co., UK)를 이용하여 치근면적과 부착상실면적을 측정하여 부착상실률을 계산하였다. 수평부착상실이 있는 치아에서는 치아장축에 평행한 선분과 최대수평풍용점이 만나는 접점과 치아장축에 평행한 선분과 최대수평함몰점이 만나는 접점간의 거리를 측정하였다. 통계처리는 SPSS(version 12k for windows, SPSS Inc., Chicago, America)를 이용하여 시행하였다.

#### 연구결과

전치부에서는 치면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착상실률의 차이를 관찰할 수 없었다. 구치부에서는 상악 소구치와 대구치의 구개면과 하악 소구치와 대구치의 설면에서 다른 치면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큰 부착상실률을 나타냈다. 수평부착상실은 조사된 치아의 약 20%에서 관찰되었으며, 상악 제1소구치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관찰되었다. 평균 수평부착상실량은 1.5 mm였다.

## 결론

발거치의 상하악 구치부의 구개면과 설면에서 높은 부착상실률이 관찰되어 치주염 환자에서 이 부위의 주의 깊은 유지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수평부착상실이 있는 치아의 진단 및 기구적용의 어려움을 고려했을 때, 본 연구는 수평부착상실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상악 제1 소구치에서 기계적 처치에 부가적인 국소적 항생제 사용과 같은 적극적인 보조적 치주치료의 정당성에 근거를 제시할 것으로 생각된다.